장성·고흥·곡성 40%대…‘박빙 대결’ 투표율 끌어올려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왜 높았나

4년전 지방선거 비해 2배 수준
격전지 목포, 전남 5개시중 1위
광주, 경쟁 치열한 동구 가장 높아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31.7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는 26.35%로, 세종시에 이어 대도시 중 2위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광주 13.28%, 전남 18.05%)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에서 30%대는 전남이 유일하다. 이 중 장성(43.72%), 고흥(43.45%), 곡성(41.05%)은 40%를 훌쩍 넘어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이라는 해석이 우세한데다 남북평화무드, 북미정상담, 러시아월드컵 개막 등 대형 이슈가 연이은 것도 투표율 저조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사전투표 결과,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촛불정국으로 정치에 관심이 쏠렸던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맞먹을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대 비민주당 전선이 형성되면서 격전지가 확산된 게 투표율을 높이는 지렛대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사전투표의 편리성과 젊은층의 참여도 투표율을 높이는데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대 비민주당 전선이 형성된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20곳이 30%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현직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장성이 43.72%로 전남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후보 간 피말리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고흥이 43.45%로 뒤를 이었다.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장흥(38.61%), 신안(37.33%), 보성(35.43%)도 전남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접전지역인 함평(35.84%), 강진(38.51%), 진도(33.92%)도 전남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전남 시(市)단위 최대 승부처인 목포도 31.65%로, 전남 5개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28.92%로 가장 높았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평화당 후보, 현직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투표율이 높은 지역의 또다른 특성 중 하나는 고소·고발과 폭로전이 극심한 곳이라는 점이다. 예측보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놓고 각 정당은 해석과 셈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건설’에 대한 바람이 고스란히 사전투표율로 반영된 것”이라며 “전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김영록 전남지사-여당 시장·군수로 핫라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너무 잘 나가다보니 식상해 하고 반발심도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주를 계기로 민주당 지지율이 꺾였다. 선거 막판 지지율이 빠지고 대안으로 평화당 후보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적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면서 광주·전남 사전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의 2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최종 투표율도 4년 전(광주 57.1%, 전남 65.6%)을 넘어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사전투표율 〈단위 %〉

◆ 전국 20.14			
◇ 광주 23.65			
동구	28.92	북구	23.70
서구	24.07	광산구	21.51
남구	24.22		
◇ 전남 31.73			
목포	31.65	화순	32.25
여수	26.21	장흥	38.61
순천	25.48	강진	38.51
나주	30.22	완도	36.49
광양	31.21	해남	30.73
담양	37.79	진도	33.92
장성	43.72	영암	30.86
곡성	41.05	무안	30.32
구례	37.91	영광	33.21
고흥	43.45	함평	35.84
보성	35.43	신안	37.33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광주시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싹쓸이” 바른미래 “광주시장 20% 득표” 평화 “단체장 9곳”

치솟은 사전투표율에 목표 수정 등 셈법 복잡해진 3당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높다 보니 여야 각 당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다. 광주 동구와 전남 고흥 등 격전지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아 각 정당은 바삐 유불리를 따지면서 선거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회까지 ‘싹쓸이’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데 이번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는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선거 초기부터 중요 전략 중 하나였던 광역단체장, 기초의원 등 모든 선거에서 압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광주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82%의 높은 투표율로 지지해 준 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서 완승을 장담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지율을 높이기에 고심 중이다.

또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민주당 ‘나’번 ‘다’번 등 후순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골목과 시장 등을 누비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겠다는 게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전략이다.

바른미래당도 사전 투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지켜보며 지방선거 전략과 목표를 가다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기본으로 받다보니, 상당수 유권자가 모든 투표용지를 민주당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일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우리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장 선거에서 전덕영 후보가 20% 이상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평화당은 광주와 전남지역 격전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동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등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2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전남에선 목포와 해남, 고흥 등지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7곳 당선이 목표다. 또 평화당은 광역·기초의원 경력을 지닌 후보군이 많아 의원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지방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표출됐다고 보고 기초의원 선거의 선전을 고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탄핵 가장 기억에 남아…개헌 불발은 아쉬워”

화순 지방선거 유세 현장서 만난 정세균 前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수·고흥·보성·강진·화순을 찾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지난달 29일자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수행을 마치고 일반 의원 신분으로 돌아온 정 전 의장은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만난 정 전 의장은 임기 중 개헌을 해내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다음은 정 전 의장과 일문일답.

-오랜만에 선거 현장에 나선 소감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온 느낌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한다. 정치는 ‘품앗이’ 란 말이 있다. 정치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다. 요즘 진 빚을 갚느라 바쁘다.

-8일째 지원 유세다. 힘들지 않나?

▲여당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사명감도 있고 보람도 느낀다. 임기를 마치자마자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유세하면서 느낀 민심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가 촛불 민심의 연장선상이고, (선거를 통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었다.

-향후 정치활동 계획은.

▲자리보다는 정치 변화를 이끌고 싶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지역구를 옮겨서까지 내리 6선을 했고 장관·원내대표·당의장 등을 지냈다. 그만큼 빚이 많고, 그 빚을 갚는 게 옳다. 첫째, 정치의 품격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싶다. 다음으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해서 후원하고 싶다. 또 그동안 서울 종로 지역구에 소홀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 공약도 챙기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호남정치인 아닌가. 호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번 (정권을 창출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들이 노하우가 부족해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통령 탄핵이다. 이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이지만 탄핵가결은 다행스럽기도 하다. 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가결돼서 정권교체가 된 것 아닌가. 만약 탄핵의결이 안 됐으면 정권교체도,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탄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된 것이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개헌을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준비는 다 됐는데 정당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개헌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개헌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각 교섭단체가 대표를 2명씩 내서 8인회의를 하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두 가지다. 우선 권력구조 즉, 총리를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 문제다.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

-개헌 시기는.

▲올해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안 되면 늦어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